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Marriage Migrant Women's Experiences in the World of Life

이형하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oung-Ha Lee(hhlee62@kw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거성'이라는 이주의 짐꾸러미를 안은 채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주 후 자신들의 체험들을 어떻게 주체적 행위자로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세계의 체험을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성은 피부색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공간성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시도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시간성은 현실의 타만을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관계성은 확장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삶을 보인다.

■ 중심어 : | 생활세계 | 결혼이주여성 | 체험 | 현상학적 연구방법 | 질적연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pture how marriage migrant women, who are burdened with the luggage of the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past,' reconstruct their own 'experiences in reality' as subjective agents after their immigration into a new space. By applying a phenomenological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world of life in which marriage migrant women come to have experiences in the dimensions of bodilyhood, spatiality, temporality, and related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rriage migrant women never think of their bodilyness as the subject of discrimination though they have some differences in skin colors and cultural aspects, and make efforts to overcome prejudices in reality with their pride of body. As for the spatiality, marriage migrant women attempts at a spatial turn in which they reconstruct a novel sociocultural space. With respect to the temporality, marriage migrant women recognize themselves not as passive subjects who only resent reality but as being prepared for future actively. As for the relatedness, marriage migrant women show life in which they pioneer their own areas on the basis of extended personal relations.

■ keyword : | World of Life | Marriage Migrant Women | Experiences in Reality | Phenomenological Method | Qualitative Study |

I. 문제제기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는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구성하면서 출신지 사회와 현지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관계를 재구축하게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 이주 여성과 현지 여성과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매개한다[1]. 이러한 국제결혼을 둘러싼 권력 지형은 종종 ‘권력의 기하학’(power geometry)이라는 은유로 묘사되어 왔다[2][3]. 즉, 결혼을 통해 국경을 넘는 여성을 ‘팔려가는 여성’, 또는 ‘가부장제와 상업주의의 희생양’으로 단순화하고, 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남성들은 승리자로, 여성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초국가적 지배세력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주여성은 과거의 출신국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 위치하는 타자와의 마주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 주체에게 부여된 상대적 역할의 차이에 따라 자아와 타자의 교섭 공간을 매개로 지속적으로 구성되고 실천되며,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존재이다[4]. 특히, 역사나 문화 및 사회의 상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생활세계를 관통하는 체험의 실존적 구조는 네 개의 생활세계(Life world), 즉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관계이다[5]. 이를 본 연구에서는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으로 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에 가까이 접근해 보고, 이를 토대로 이주여성들의 삶의 재해석하고 재구조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거성’이라는 이주 의 집꾸러미를 안은 채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주 후 조직화·규범화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위치에서 모방이나 재생산의 ‘유목적 체험’을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체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떻게 경계를 넘나들고 관계성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체험들을 주체적 행위자로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세계와 체험

Husserl(1962)은 현대 세계가 근대 자연과학적 전통에 의해 규정된 세계라 말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자연과학적 태도를 제거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 자연과학을 통해 보여진 세계상은 우리의 직관으로 경험된 세계를 객관화하고 이상화한 결과이며 달리 표현해서, 이 세계는 ‘이념의 옷’(Ideenkleid)으로 입혀진 세계라는 것이다[6]. 결국, 생활세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화를 통해 얻어지는 즉 ‘학습된’ 의미이며, 개인에 앞서 존재하는 ‘사회적’ 의미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은 이 생활세계 내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동료와 더불어 생활세계를 공유한다. 그것은 ‘사회적’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생활세계는 거시적 측면으로서의 사회구조와 미시적 측면으로서의 개인 사이의 의미 있는 연결이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장이며, 인간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행위 공간이다[7].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주한 정착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존재 자체가 주체/타자라는 고정성에 어긋나는 분열의 공간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8].

한편, 체험은 정태적 문제가 아니고 동태적 문제이다. 체험은 그 의미의 통일 속에서 과거의 회상과 미래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연결하여 포괄한다. 과거와 미래는 모든 체험의 현재성과 구조적인 통일성을 형성한다. 체험의 시간성은 의식에 의해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 자체와 함께 하는 것이다[9].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 자신들의 생활세계 체험들을 주체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경계를 넘나들고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생활세계를 부분적으로 다루는 연구[3][8][10-12],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13], 가족제

계와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통합과정과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연구[14] 등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생활세계의 4가지 부분적 차원의 접근(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성에 관한 연구로 송민애(2007)는 결혼이주여성의 몸 경험의 본질은 준구성원(pseudo-member)이며, 이런 정치적 위치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몸은 통제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경제적, 신체적, 성적, 문화적, 영적, 그리고 여성들이 위계에 의한 통제로 주변인으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고 하였다[10].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몸 경험의 의미는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몸으로 “탈맥락화된 몸, 경제적 디아스포라, 탈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이주 네트워크의 허브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성에 관한 연구로 이형하(2010)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디딤돌 삼아 가족경제 밖의 조직화된 지역사회 참여를 생활세계로서의 지역사회 통합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11].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는 낯선 사회에 들어선 후 시간적 특권화를 극복하고 한국사회를 공간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의미한다[15][16].

셋째, 시간성에 관한 연구로 이형하 외(2010)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뿌리내림의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하고 있다[12]. 1단계는 ‘낯선 지역으로 들어서기’ 단계로 이 과정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정착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신분의 불연속성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다[17]. 2단계는 ‘삶의 개척자로 살아가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쌓고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무능하게만 여겨졌던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이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출신국의 교육과 기술의 이전 가능성(transferability)이 적을수록, 스스로의 다양한 교육에의 투자가 있게 되고 이는 소득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의 결

과이다[18][19]. 3단계는 ‘마을주민으로 참여하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순응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을 발판삼아 주도적으로 마을주민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넷째, 관계성에 관한 연구로 박신규(2008)는 이주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이동되어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8].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공적, 사적인 지역적 공간과 역할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간다고 한다. 즉, 출신국에서의 과거성에서 시작된 ‘피해자’, ‘빈곤자’로 상정을 통해 주제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타자화함으로써 이주여성을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의 관계성을 갖는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개별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세계의 4가지 차원을 동시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연구는 이들 여성의 삶과 분리된 탈맥락적 구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층적 상황과 때로는 고정성에 어긋나는 분열의 공간에서 이들이 겪게 되는 체험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어 생활세계의 경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라남도 군 단위 지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를 만나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체험하는 생활세계 경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심층면담과 면담과정에서 연구자의 느낌과 생각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매회 면담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졌고, 녹취록은 반복 읽기를 통해 의미가 떠

오르게 하였다. 면담 전에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연구 동의서를 교환했다. 동의서는 연구 내용과 면담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기간 동안 참여자 스스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담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녹음내용에 대해 전화면담을 1회이상 실시하여 명확하지 않은 의미에 대한 확인과 추가 질문이 이루어졌다.

2.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전남지역 다문화지원센터 5곳을 접촉하여 시설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소개받은 9명을 대상으로 다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2명, 30대 2명, 40대 4명, 50대 1명이었다. 결혼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였다. 출신국은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일본 2명, 중국 1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참여자	출신국	연령	학력	결혼기간	본인직업	남편직업	자녀
1	필리핀	40세	전문대졸	13년	영어강사	일용직	1남
2	중국	38세	고졸	15년	문화해설사	자영업	2남
3	일본	41세	전문대졸	13년	통역 인내원	회사원	2남
4	필리핀	44세	대학졸	9년	군청 상담원	농업	1남 1녀
5	베트남	26세	초졸	4년	주부	회사원	-
6	필리핀	41세	고졸	10년	자활지원센터	농업	3남
7	일본	51세	고졸	13년	자활지원센터	농업	1남
8	베트남	27세	고중퇴	5년	판매사원	택시기사	2남 1녀
9	필리핀	30세	고졸	2년6개월	주부	인테리어	1남

3. 자료의 분석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Colaizzi, Giorgi, Spiegelberg, Van Kaam, Van Manen)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고 상호주관성을 통하여 생활세계에 본질의 의미와 구조를 현상학적 기술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 이 연구에서 사용한 현상학적 자료 분석방법은 생활세계에서 일상의 체험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Colaizzi의 분석방법이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상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 4가지[21]-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따라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체험하는 생활세계의 4가지 차원의 경험(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신체성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낯선 가정과 사회라는 생활세계에서 체험하는 신체성은 “무시당하기도 하고, 차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당당하고 싶어하는 몸”의 재현을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의 몸에 따라붙는 매매혼이라는 굴레는 남편의 폭력앞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집안의 온갖 굵은 일을 도맡는 하녀와 같은 삶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남편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주여성의 삶에도 투영되어 수급자로서의 고된 삶을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참여자 1, 7, 8). 가난한 삶은 본국으로부터 몸에 배인 것이라지만 무시와 차별을 동반하는 현실의 버거움은 견디기 쉽지 않다. 더욱이 남성우월적 가족문화는 비교적 양성평등에 익숙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커다란 벽으로 다가온다(참여자 2, 4). 아이들의 학습과 농사일마저도 감당해야 하는 몸은 잠시도 쉴 여력을 주지 않는 삶으로 마치 달구지를 끌고가는 등구부러진 우마와 같은 신체성으로 재현되기도 한다(참여자 9). 아래는 결혼이주여성이 체험하는 신체성에 투영된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누구는 뼈 빠지게 고추농사를 하는데 고추 묘종 사

다가 심어 주고 고추 따고 갈아서 고춧가루까지 만들어서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한테 주니까 좋으니까 어머니 자식이니까. 나한테 주냐고? 나는 사먹으면 돼. 솔직히 말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그 돈에 사먹고 떡을 친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자식이니까 좋으니까 좋는데 나는 힘들어요.”

표 2. 연구참여자가 체험하는 생활세계

생활세계	의미	현상
신체성	무시당하는 몸	·매매혼이라 무시함 ·하녀로 취급당함 ·수급자로서의 삶 ·남편의 폭력
	차별의 대상인 몸	·남성의 우월주의 ·농사일, 직장일 병행이 힘들 ·직장내에서 인종차별
	당당하고 싶은 몸	·직장내에서 인종차별 사라짐 ·중국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함 ·이주여성도 한국사람처럼 대해주기 바람
공간성	공간적으로 배제됨	·시골생활의 스트레스 ·불편한 이웃 ·국적이 없어 사회생활의 어려움
	사회문화 공간에서 배제됨	·직장(자활)내 퇴근시간 문화적 차이 ·센터에서 제빵기술 배웠으나 쓸데 없어
	자신의 공간확보에 대한 열망	·자신의 집을 갖고 싶어함, 분가하고 싶음 ·함께 어울리기 바람
시간성	현재화된 과거시간	·남편의 국적취득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관심 ·남편의 음주문제는 진행형 ·주택임대기간 만료후가 걱정
	미래를 준비에 대한 인식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노후준비가 필요 ·지금은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감
관계성	권력구조화된 가족관계	·시누이만 도와주는 시어머니 ·수급비 통장관리마저도 시어머니가 도맡음 ·남편에 대한 의부증 극복
	집밖과의 소통에 참여	·지역모임 참여 ·이웃과의 교류
	원가족문화에 대한 관계유지	·남편도 아내문화 배워야 ·친정 동생의 도움
	개척자 정신으로 관계성 증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함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꿈을 기짐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주변의 시선이나 가정으로부터의 억압된 구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이주여성들은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인처럼 대해주기를 부탁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한민족(조선족)으로 당당

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자기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피부색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참여자 2, 6). 아래는 신체성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나는 중국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오히려 한국 오니까 교포다 하면서도 안 받아주는 거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흑인들도 존경해 주고. 그런 거 있는데. 걸어 다닐 때 보면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구나...”

2. 공간성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 후 낯선 지역에 내던져져 “공간적으로 배제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배제되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열망”으로 지역사회라는 공간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한다.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사회라는 공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방인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특히 농촌지역이라는 좁은 공간은 혈연공동체로 묶여져 이주여성들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는다(참여자 9). 때로는 이웃집 흠아비의 과도한 음주로 예고 없이 남편이 없는 집을 함부로 방문하여도 이를 항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자활을 하기 위해 제빵기술을 배워도 이주여성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딱히 정해지지 않고 눈치보며 일해야 하는 한국의 초과근무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참여자 7). 아래는 새로운 이주공간에서 배운 기술마저도 배제의 경험을 하게된다는 인터뷰 자료이다.

“그런데 인자 센터에서도 뭐... 빵도 굽고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인자 수료장은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써 먹을 때는 없어요. 하려면 자기가 인자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배웠다 해도.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배제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월급을 아껴 적금을 한다(참여자 4).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희망하기도 한다. 또한 점차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공간을 넓히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 때로는 직접 음식을 만들어 동네주민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고, 동네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열성을 보인다(참여자 2, 3).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시도한다. 아래는 공간적 전환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1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았잖아요. 힘들고 불편해요. 진짜로. 지금 나오니까 좀 괜찮아요.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다문화센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어디를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3. 시간성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시간성은 “여전히 과거가 현재화된 시간적 속박을 하기도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인식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이미 국적취득 기간이 지나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참여자 5). 이주여성에게 국적취득은 또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남편의 역할은 국적취득 여부의 생사권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무관심으로 대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간다. 마치 사람의 그림자만 있는 실존하지 않는 거울속 인간으로 전락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초기부터 계속되어온 남편의 음주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은 음주로 오토바이 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술로 인해 부부간에 잦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참여 6). 가정의 주거공간도 임대주택이라 곧 임대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인 남편은 아무런 준비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알려주지 않는다(참여자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래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의 생존문제라는 버거운

짐을 함께 고민하고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남편의 배려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은 내일도 모래도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아래는 시간의 흐름 앞에 놓인 미래의 주거걱정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불편한 거 달 뜨는 집(공동주택) 거기서 5년까지만 살아요. 나중에 집도 필요하구요. 그럼 어디서 사는가 우리는..”.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현실의 타만을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 즉, 남편과의 연령 차이는 머지 않아 남편의 고령화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에 곧 다가올 노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도 보인다(참여자 4). 미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자립단계까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두고 지원을 희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이주여성 자신도 상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다(참여자 1, 2). 아래는 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는 결혼이주 여성의 노후준비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남편 만 안 늙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늙으면 벌어 살려야 하잖아요. 나도 건강이 안 좋은데 남편마저 늙어서 그런다면. 너무 먼 얘기지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4. 관계성

연구참여자들이 체험하는 관계성 영역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권력구조화된 가족관계에서 무기력하게 맞서야 하기도 하지만, 집 밖의 사람들과 소통의 공간을 넓혀가고, 원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문화도 남편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며, 개척자 정신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는 의지”를 보인다.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가족구조는 상당부분 시댁식구들과의 갈등상황이 자주 나타나는 구조이다. 시어머니는 시댁가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며, 새로운 식구에게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시댁가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갈등구조가 발각되면 문제가 증폭되어 이주여성은 가족구조 속에 힘없는 포로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참여자 8). 겨우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계수단인 수급비마저도 시어머니가 관리하여 용돈 수준의 생활비로 버티며 연명해야 하는 삶은 건강한 가족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곳은 남편밖에 없어 남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때로는 의부증을 낳는 결과도 초래한다(참여자 2). 아래는 남편과의 단절된 관계성으로 부정적인 체험을 이해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그 간에 곡절은 참 많았지만은 곡절 있다는 게 신랑한테 집착이 심해지더라. 왜냐면 내 일을 안 갖고 저 사람 한사람한테만 신경을 쏟아 보타 보니 집착이 심해져 옆에 언니들은 그러지 말고 니 스스로 따른 일을 가져 가라.”

그러나 이러한 소통의 장애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체적 노력도 돋보인다. 즉, 지역주민의 모임에 참여하고 학부모모임에도 참여하여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 밤마다 한국요리 배우기라는 기회를 통해 이웃과의 교류에 폭도 넓혀가는 관계망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참여자 5, 8). 이와 동시에 본국의 원가족의 관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한국사회에 불러 들이기도 한다. 남편에게도 자신의 문화에 대해 이해시키고 알고하고자 노력한다(참여자 6, 8). 이러한 확장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삶을 보인다. 즉, 가정에서 요리로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하며, 비록 현재의 수급상태는 멀지 않아 탈출하여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리라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다(참여자 1, 7, 8). 아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장생활 과정에서 미래의 꿈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 자료이다.

“지금 직장을 통해서 여기서 기술도 많이 노력해서 늘어나서 잘하게 되면 좋고, 우리 지금 여기는 화분만 들어서 화분 판매하는데, 많이 판매할 수 있으면 더

좋고...”

V.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이라는 4가지 차원의 체험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9명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개념화와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주화 분석에 근거하여 4가지 차원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가 갖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성 : 이주여성들의 몸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인식이 각 개별적인 국가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차별화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 각 개인은 ‘매매혼’으로만 일반화될 수 있는 집단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주여성들의 몸 경험의 의미는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므로 이주여성들의 몸 경험에 대한 구조적·주체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22].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피부색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결코 차별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당당함으로 현실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공간성 : 결혼이주여성들이 ‘공간적 전환’ 과정에 가족중심 구조에서 자국출신 중심의 자조집단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적응기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의 닻(anchor)에 정착하여 ‘초국적 순회’(transnational circuit)를 하는 제한된 공간[23][24]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간의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신과 가족의 지원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활동공간을 넓히는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강점지향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성 :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

응하는 과정상의 시간 갈등(temporal conflict)을 간과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차적인 '관계 속의 삶에 성공'한 관점은 경계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인 한국에 입국 후 초기적응과 중기변화 그리고 장기적 발전의 단계적이고 계층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결코 결혼이주여성들은 시간적 흐름에 내던져져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당부분 스스로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삶의 개척자이고 현재의 시간의 주인공이라는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자녀출산과 한국사회 적응단계를 지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재교육을 통한 미래계획이 가능한 실존적 존재로서 성장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복지주체의 적극적인 연계에 기반한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관계성 :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단순히 경제적 신분상승만을 갖대로 하는 승격혼(hypergamy)에 비중을 둔 수직적인 관계성 논의는 현대의 결혼이주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남편의 배우자로서의 국적취득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권의 획득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한국 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역할과 관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친정식구의 부양, 초국가적인 가족관계망 형성, 남편에 대한 다문화환경에 대한 이해 요구의 증가와 같은 적극적인 자기정체성의 소유자로 타인과의 관계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사회문화적 존재란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험을 적용과 부적응, 남성권력의 희생자, 혹은 상업주의의 희생양으로 사회적 보호라는 틀에 정제되어온 해석의 울타리를 '새로운 삶을 버텨나가고, 이겨내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존재로 재구조화'하는 재해석의 틀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체험하는 생활세계는 4가지 차원의 분절과 막힘을 넘어 새롭게 재구성하고 전환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점은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25].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적 다양성을 상호이해

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소수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26],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는 민주시민적 다문화역량과 관련한 교육과 체험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은실, 김정선, “지구/지역 시대 개인들의 행위 전략으로서 국제결혼: 새로운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충남 J마을 사례 연구”,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한국여성연구원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 [2] D. Massey, *Space, Place,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95.
- [3] 정현주, “경계를 가로지르는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109-1211, 2009.
- [4] 이현주, 강혜규, 정경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5] 한인영, 김선민, 김진숙, 김진숙, “청소년 성폭력 경험자의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pp.385-417, 2008.
- [6] 임병조, 류제현, “포스트모던 시대의 적합한 지역 개념의 모색: 동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2권, 제4호, pp.582-600, 2007.
- [7] 김왕배, *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서울: 한울, 2000.
- [8] 박신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 pp.40-53, 2008.
- [9] 황미숙, “생활세계에 있어서 몸 현상의 이해론적 해석”,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6권, 제4호, pp.389-399, 2005.
- [10] 송민애,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의 몸 경험*,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1] 이형하,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pp.219-245, 2010.
- [12] 이형하, 안효자, 조원탁,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주민으로 참여하기’ 과정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4집, pp.133-157, 2010.
- [13] 최금혜, “고학력 조선족 국제결혼 여성들의 한국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제외한인연구, 제22호, pp.139-173, 2010.
- [14]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0호, pp.319-359, 2007.
- [15] Harvey, David,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1996.
- [16] 김영옥,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4호, pp.31-64, 2010.
- [17] K. M. Lin, M. Masuda, and L. Tazuma, “Adaptational problems of Vietnamese refugees. Part III. Case studies in clinic and field: Adaptive and maladaptive,” *The Psychiatric Journal of University of Ottawa*, Vol.7, pp.173-183, 1986.
- [18] B. Chiswick, Y. Lee, and P. Miller, “Patterns of immigrant occupation attainment in a longitudinal survey,” *International Migration*, Vol.41, No.4, pp.47-69, 2003.
- [19] D. Rooth and J. Ekberg, “Occupational mobility for immigrants in Sweden,”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39, No.3, pp.57-77, 2006.
- [20]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Giorgi, Colaizzi, Van 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호, 제6호, pp.1028-1220, 1999.
- [21] Y. Lincoln and E. Guba,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 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1, pp.65-172, 1985.
- [22]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Th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Press, 1990, 신경림, 안규림 역,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1994.
- [23] 이근무, 김진숙,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135-162, 2009.
- [24] T. Fasit,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23, No.2, pp.189-222, 2002.
- [25] 정의정, 하규수, “다문화가족 남성배우자의 이중문화스트레스,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2호, pp.222-231, 2012.
- [26] 박근수, 신희정, “중·고등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307-319, 2012.

저 자 소 개

이 형 하(Hyoung-Ha Lee)

정희원



- 2004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복지, 자활지원, 다문화인과 정책, 국민연금과 노인복지 등